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6-06

아나키스트연대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6-06
2021.06.06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222387282010>

kr.theanarchistlibrary.org

2021.06.06

1. [아나키스트는백신접종을반대해야하는가?]

우선분명히밝혀두고시작하고자한다. 아나키스트연대는다른어떤이유도아닌우리가함께살아가고있는모든이웃을위해, 그리고우리스스로를위해가능하다면최대한빨리백신접종에동참할것이다.

왜이런이야기를하느냐하면최근스스로를아나키스트라고이야기하며코로나 19 백신에대한음모론을퍼는이들이아나키스트연대의카카오톡오픈채팅방에서도있었기때문이다. 음모론이라는것이늘그렇듯사람들의불안을이용해영혼을좀먹어들어가는것이지만, 자본가들이세계의인구를감소시키기위해일부러변종바이러스를퍼뜨리는약품을백신이라는이름으로포장해공급하고있다는류의이야기는, 해도너무했다.

그러면저런허황된이야기들은더상대할가치도없으니제쳐두고몇가지를따져보도록하자. 첫째, 아나키스트는국가혹은정부가주도하는백신접종에동참하거나찬성해야하는가? 이것은국가를존속시키는행위이기아나키즘과상충하는것이아닌가? 둘째, 백신접종에반대한다면이것은사회를, 조금더직접적인말로사람들의목숨(문자적표현그대로목숨)을지켜낼수있는가?

두번째질문부터분명하게답하겠다. 현재백신을 통한접종외에코로나 19 의전과를멈추거나, 혹은그속도를늦출수있는방법은없다. 코로나 19 에감염된이들에대한치료제는또다른문제이니다른기회에다룰수있겠지만, 코로나 19 의감염이전에이로부터예방수칙보다더높은확률로감염을막을수있는방법은예방접종뿐이다. 21 세기의과학이가리키는방법은이길이다.

그러면왜이러한과학적근거를눈앞에두고도백신을접종하면안된다는니하는이야기가나오는가? 첫째로는백신접종에대한선택의자유를이야기하는이들이있고, 둘째로는과학적근거에대한근거없는비난및불신이크갈래로나날것이다. 과학적근거에대한근거없는비난및불신, 혹은검증되지않은사례를이야기하는것은논하지않겠다. 논할가치가없는이야기는논하지않을용기도때로는우리에게필요하다. 그러면첫째이유, 백신접종에대한선택의자유(물론둘째이유의방어를위해이것을사용하는사례도대다수다)에대해서는어떻게이야기할수있을까?

분명한것은그선택은당연히존중되어야한다는것이다. 내몸에약물을투여하지않겠다는이들에게강제로그것을투여할방법은없다. 그것이자유다. 하지만자유는언제나책임이따르는것이고, 그선택에대한결과를책임질자세가되어있기를바랄뿐이다. 자신의선택으로백신접종을거부한이들은앞서이야기했던것과같이우리와함께살아가는이들에대해직접적인생명의위험을초래하는이들일것이다. 그렇다면국가나정부가아니더라도공동체는그런이들에게그에상응하는것들을요구할수있을것이다. 이에대한것만수용할수있다면, 그선택은자유다.

국가권력이 끌고거죽여놓고추모를하라는정신나간행태를우리는도저히받아들일수없다. 그럴시간에우리는차라리정부청사에침이라도한번더뺄고자한다. 그것이차라리죽어간사람들에대한더올바른추모일테니까.

” 오늘 66 회현충일추념식…전국 1 분묵념” :
<http://naver.me/5uxqcgFh>

다시원론으로돌아와서, 그렇다면아나키스트는국가나정부에협조해백신접종을해야하느냐는질문에답해보자. 우리는이에대해백신접종은국가나정부를존속하는것이전에, 사회를지켜내는일로접근해야한다고답하겠다. 백신접종거부를국가와정부에대항하는무기로사용해국가와정부가무너진다고해보자. 사람들이지금보다더많이나죽어나간뒤의세상에도래할수있는것은그저혼란그자체인카오스이지, 다른질서로사회를재편하는아나키즘이아닐것이다. 우리는’ 다른’ 세계를원하는것이이지, ’ 망해버린’ 세계를원하는것이아니다.

고장난시계도하루에두번은맞는다. 아무리내가싫어하는사람이라도삶에서의모든행동이틀릴수는없다. 소뿔걸음질치는격이라도맞는말을한다. 자본과국가가백신개발및접종을서두르는것은물론지금의체제를지키고유지하기위해서다. 이미자본과국가는지금의상황을기존의체제수호가어려울수도있는심각한상황으로받아들이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우리는우리주변의목숨을내던지자는주장이아니라, 백신의분배조차자본의논리에목줄이매여끌려다니는상황을지적하고, 우리목숨을가지고거래하는자본을폭로하고, 이에대한반대의견들을모아내는일에열중해야할것이다. 다시한번말하지만우리는’ 동귀어진’ 이아니라’ 다른세상에의상상력’ 을향해나아가야한다.

백신접종에동참하든하지않든자유다. 하지만그로인해누군가목숨을잃을확률이올라가고전파가계속될확률이올라간다면그에대한반대급부는전적으로채임지도록하자. 그리고제발이상한, 말도안되는음모론에혹하지말고이상황에서도이윤과차별을먼저생각하는자본과국가에대항할수있는방법들을모색하자. 그러기위해서, 일단살아남자. 우리가살아남는이유가국가를유지시키기위해서도아닌것을명확히인식하고, 우리가여러상품을구매하는것이자본을배불리기위한것이아니라는것을명확히인지하자. 바로그자리에서부터, 우리는대중과함께이야기를시작할수있을것이기때문이다.

” 백신접종 100 일…이달’1 천 300 만명 +a.11 월집단면역’ 청신희(중합)” :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4127951530?input=1195m>

2. [일찍깰다고저절로일찍출근할쏘냐]

5 월 15 일, 서울용산구의한도로에서한청소노동자가지친듯이주저앉더니결국뒤로쓰러지고말았다. 가로청소위탁업체에소속된 60 세의박모씨는뇌경색으로병원에 옮겨져 치료를받았지만열흘만에끝내세상을떠나버렸다. 심장질환도있던그이지만아직자녀들이대학생이기에일을계속하려했던그는노년에청소업체에들어가서오후 4 시에일이끝나면잠만잘정도로힘들어했다. 그는다른동료들과더불어본래근무시작시

간은 새벽 6 시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량달성을 핑계로 매일 1 시간 더 일찍 출근해서 5 시부터 청소를 시작했다. 게다가 청소해야 할 구간이 무리하게 할당되어서 탄력적으로 사용하러던 휴게 시간도 눈치를 보면서 쓰기 어려워했다.

이런 정황으로 보아 박모씨의 안타까운 죽음은 명백히 무리한 노동을 강요해 온 청소업체가 저지른 산업재해이며 살인이다. 다행히 청소업체는 뒤늦게라도 장례절차와 산재신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업체 측에서 1 시간 더 일찍 출근하는 것에 대해 이따구로 변명했다. “60 대가 넘어가면 잠이 없고 새벽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지 절로 일찍 깨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말일 수가 없다. 60 대가 넘어간다고 모두 잠이 없어지는 게 둘째치고 상식으로 일찍 깬다고 저절로 일찍 출근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차라리 그 시간에 체조를 하거나, TV 나 라디오를 듣거나 하지 않을까?

왜 이리도 청소노동자, 운송업자 등 필수노동자를 경시하는가? 딱히 ‘배움’ 없이 할 수 있다고 보니까? 우선 과연 해당 직종에 업무에 대한 ‘배움’이 아예 없는 지도 의문이지만 일단 그토록 주장하니 없다고 치자. 그렇다고 그 일의 강도가 약한가? 아직도 또 뜨지 않은 새벽이나 깊이 해가 저문 심야에 바닥을 쓸고 닦으며, 역겨운 토사물을 치우며, 무거운 쓰레기를 치우는 일은 절대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 그 일이 중요하지 않은가? 흔히 역대의 영봉을 받지만 실제로 노동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변리사와 변호사들은 물론이요 실제로 현명에게 많은 이기를 가져다 주는 하이테크 개발자들조차도 인류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할 뿐이지 직접적인 생존에 필수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필수노동자들은 당장 존재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순식간에 물자 부족과 열악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질병에 의해 멸망하고 말 것이다.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노동자는 없다는 것이다.

”60 대 청소노동자의 죽음… 그들은 왜 1 시간 일찍 출근했나” :

https://imnews.imbc.com/.../article/6231498_34936.html

3. [그러면 망하시면 됩니다]

중소제조업체들이 괴로운 모양이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해운운임이 상승했는데, 주 52 시간 규제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쳐서, 버틸 수가 없다. 원자재 가격이나 해운운임 상승은 통제할 수 없는 리스크니까, 내버려 두자. 애초에 리스크도 고려 안 하고 경영하는 멍청한 경영자라면 망하는 것이 정당하니까 말이다. 아마도 노동 시간 최대한도 규제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기업들에게 감히 규제를 하다니! 나아쁜 좌익? 빨갱이? 친노동? 문재인 정부! 같은 말 말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체라는 곳들은, 노동자들이 주 64 시간의 노동을 (1 주 52 시간에 탄력적 근로 시간 제를 확대 적용해 주고 어찌

고해서 52 시간까지는 연장수당 없이 일하고, 12 시간은 연장근무할 수 있게 해줬으니 까), 시간당 8,720 원 미만을 받으며 하지 않으면 망하는 곳들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러면 망하시면 된다. 망하기 싫으면 그 잘 나셨다는, 고수익의 근거라는 “경쟁능력” 같은 것을 발휘해서 판로를 뚫어 보시던가. 그것을 할 능력이 안 되면, 그 능력에 걸맞게 사장 월급을 까서 노동자들 최저 임금을 맞춰 주던가. 그것도 못할 정도의 기업체라면, 사장님들이 그토록 사랑해 오시던 시장 경제의 원칙에 따라 문을 닫는 것이 옳다.

아니, 그런데, 솔직히 주 64 시간 노동이 적은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했더니,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지만 대기업과 일부 1 차 협력사만 호황일 뿐 2~3 차 협력사는 힘겨운 상태”라 “고 밝혔다”고 한다. 인간적으로, 대기업 사내 하청을 중소기업이라고 부르는 건 좀 그렇지는 않은가. 결국 문제는 대기업들이 뺄을 너무 많이 뜯어 가서 그런 건데 말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쓴 곳이... 음, 한국경제...

(끄덕)

”” 이와중에 주 52 시간, 더 버틸 힘 없다”... 중소기업’ 비명” :

<http://naver.me/G5rhtZOw>

4. [죽여 놓고 추모를 하란다]

현충일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위해 국민들과 국가 전체가 묵념하고 그들의 정신을 기리는 날이다. 물론 현충일에서 대부분 묵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중 절대 다수는 군인인 것은 넘어가고, 경제개발이라는 명목 아래에 죽어나간 이름 없는 노동자, 민중은 없다는 것은 넘어가자. 국가가 추모하고 기억하려는 척조차도 안 하려는 대상일 뿐이니까.

월남전에 참전해 죽어나갔던 사람들, 한국전쟁에 참전해 죽어나갔던 사람들을 국가가 기억하는 척 행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민족의 자주 독립 국가를 건국하고자 한 사람들 (심지어 자칭 아나키스트들도) 을 기리고자 한다. 그리고 그들의 정신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겠다.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죽은 이유는 그들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자 마음 먹고 미친 듯이 돌격을, 자폭을, 총탄이 빗발치는 전투 현장에 나섰기 때문이 아니다. 당신들이 멋대로 ‘의무’ 랍시고 정해 놓은 법과 헌법에 따라 징병됐고, 그속에서 죽음으로 몰아 죽음의 당위성을 강제로만 들어 낸 것이 아닌 가?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독립 운동을 통해 만들 고자 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 인지는 몰라도, 미소양국에 의해 찢어발겨진 한반도에서 나타는 양 정부가 그 소위 ‘민족’ 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자행 하고 학살과 통제, 지배를 자행 했음을 우리는 잊을 수 없다.